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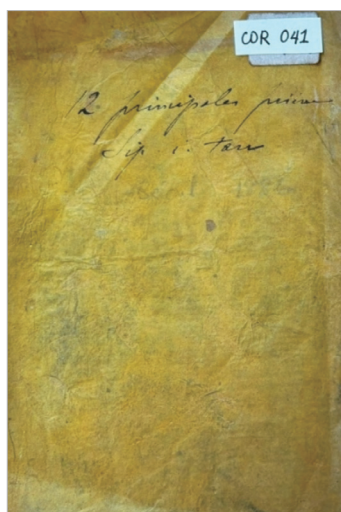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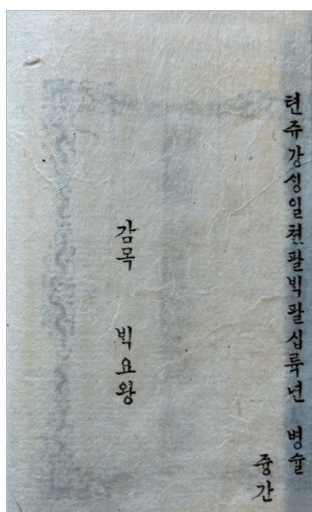
교회 측 기록에서 확인되는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 관련 내용 소개 (2)

- 신자들의 증언록에 나오는 ‘십이단’ 내용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필자는 ‘십이단(주요 기도)의 변천 과정과 간행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3월 8일(토) 부산교회사연구소에서 그 동안 정리했던 ‘십이단’에 대한 서지학적 기초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하고 비교·분석해서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일일이 연구논문에서는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호에 이어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주성교십이단』 간행본 : 1886년 활판(活版) 중간(重刊)

* 파리외방전교회 프랑스아시아연구소(Irfa) 소장 [울산대학교 노경희 교수 촬영]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 시기 신자들과 ‘십이단’ - 심문에서 신앙을 증거하다

1866년 음력 4월 공주 국실(현재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살던 이 바오로와 김군심을 비롯한 신자 22명은 공주 포교들에게 잡혔습니다. 포교들은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대고 책을 바치라고 하면서 혹독한 형벌을 가했고, 신자들은 팔이 부러지거나 혹은 다리가 부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후에 관장이 배운 것을 외우라고 지시하자 신자들은 십이단 기도문이나 다른 기도문을 외우면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형벌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교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6권 82~83쪽)

전주 사람인 황 베드로는 대흥(현재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일대)에 살다가 길에서 서울 포교에게 붙잡혀 대흥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대흥 관장의 심문 과정에서 황 베드로는 십이단과 문답을 외우고 천주교 신자로서 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이송된 지 4개월 후에 교수형을 받아 46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21권 142쪽)

‘하느님의 종’ 이 요한은 경기 죽산 남광리(현재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사람으로, 먼저 입교한 부모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고향을 떠나 광주 먹방리(현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1866년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자 충주로 가서 숨었지만, 광주(廣州) 포교에게 잡혀 광주 관아(남한산성)로 끌려갔습니다. 관장이 “천주학을 하느냐?”고 묻자 바로 “천주성교(天主聖敎)를 받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관장이 “그러하면 제가 배운 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큰 소리로 교리문답과 십이단 기도문을 외우면서 “죽어도 천주는 배반치 않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옥에 갇혀 있다가 신자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아 38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23권 10쪽)

이와 같이 관아로 붙잡혀 온 신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십이단과 문답을 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고, 끝내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1868년(무진) 공주에서 교수 순교한 소녀 4명과 ‘십이단’ - 부모와 함께 순교의 길을 가다

1868년 천주교 박해가 거세게 일어날 때 충청도 면천(현재 충남 당진시 면천면 일대)의 용기점 신자들도 잡혀서 해미 진영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김춘겸, 김성연 등은 신앙을 증거하고 해미에서 순교했습니다.

김춘겸의 딸과 김성연의 딸, 다른 신자의 두 딸, 모두 4명의 소녀도 부모와 함께 해미 진영으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습니다. 10~13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신앙을 증거하고 죽겠다고 하자 해미 영장은 따로 소녀들을 불러 심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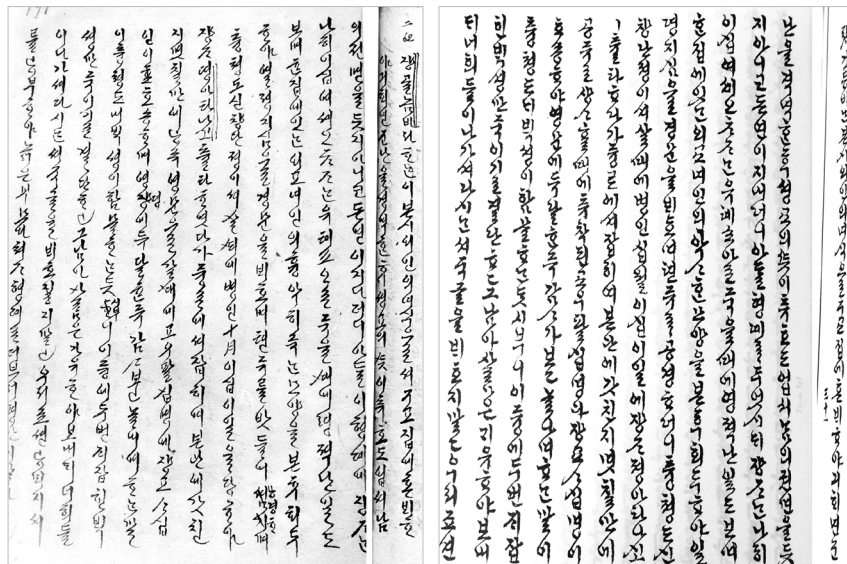
영장이 “너희들도 천주학을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어찌 우리들인들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이 되어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살릴 터이면 옳거니와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만 살리려고] 그리 마옵고 바빠 죽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장은 웃으면서 달래는 말로 “철모르는 것들아, 네 부모는 나이가 많으니 죽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무슨 천주학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소녀들은 “우리들이 천주학을 외울 것이니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십이단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기가 막힌 영장은 형틀을 가져다 놓고 소녀들을 차례로 그 위에 세운 다음 피가 나도록 매를 쳤지만, 끝내 소녀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모르게 된 영장은 소녀들을 상급 관아인 공주 감영으로 보냈습니다.

공주 감영의 영장도 소녀들을 심문했는데, 소녀들의 종아리에 남아 있던 매맞은 자국이 사흘 만에 없어지고 다리도 멀쩡해졌다고 합니다. 해미의 심문과 마찬가지로 천주학을 하느냐는 영장의 질문에

소녀들은 “과연 천주학을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장이 “너희들이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소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배웠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영장은 “철모르는 것들아, 너희들이 무슨 천주학을 하겠느냐? 잔말 말고 나가 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우리가 천주학을 외울 것이니 들으시오” 하면서 해미 진영의 심문과 똑같이 십이단 기도문을 함께 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공주 영장은 기가 막혔고, 그냥 풀어주고 싶기도 했지만 뒤에 일이 생길까 싶어 결국 소녀들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소녀들은 11세, 12세, 13세, 10세였고, 부모를 따라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병인치명사적』 11권 32~34쪽)

‘천주교 박해 시기’에 십이단 기도문은 신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익히고 외워야 하는 것이었고, 어린 소녀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십이단을 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장 골롬바 순교 행적 (왼쪽) 『병인치명사적』 23권 / (오른쪽) 『박순집 증언록』 2권

1866년 공주에서 교수 순교한 장 골롬바와 ‘십이단’ - “진실한 천주학 선생”

장 골롬바는 원래 비신자였지만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던 집안(구교(舊敎)) 사람과 혼인하였습니다. 1839년(기해) 천주교 박해를 겪은 후에는 냉담했지만, 둘째 아들이 아기로 죽을 때 신비스러운 일(영적(靈蹟))을 경험했고 한 집에 있던 비신자 여인이 혐악하게 죽는 걸 본 다음에는 회개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청도 신창 단정(현재 아산시 선전면 가산리)에 살았습니다.

1866년 음력 10월에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공주 감영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때 장 골롬바의 큰 아들인 정 아나타시오도 붙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 골롬바는 자신도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주치명(爲主致命,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연 11월 초에 포졸들이 집으로 들어닥치자 장 골롬바는 기쁜 마음으로 붙잡혔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주 감영에서 심문을 받을 때 감사(監司)가 “네 식구들이 다 천주학을 하느냐?”고 묻자 장 골롬바는 모두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감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묻자 자신이 식구들을 모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에 “천주교 글을 외우라”는 지시를 받자 장 골롬바는 무릎을 모으고 단정히 앉아 십이단과 삼본문답(三本問答, 세례·고해·성체성사 문답), 조만과(早晚課, 아침·저녁기도)를 거침없이 줄줄 외웠습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천주학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골롬바는 다른 신자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준 사람을 말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가족들을 가르쳤다면 평소 익혔던 기도문과 교리문답서를 막힘없이 외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신자와 관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실한 천주학 선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도 십이단과 교리문답이 천주교 신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이단과 교리문답을 외움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장 골롬바는 그후 별다른 심문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감옥에서 음식을 끓였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 정 아나타시오가 음식을 권해도 그는 “이미 세상에서 천주의 큰 은혜를 많이 먹었으니 아니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달 후 쯤에 순교했는데, 그 아들과 신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려 할 때 장 골롬바의 목에 줄로 얹었던 자국이 붉은 빛이 돌고 몸에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신자인 장 골롬바의 동생이 “아마 누님이 살 듯 하니 방에 두고 기다리자”고 했으나, 아들 정 아나타시오가 “예로부터 순교자의 시신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안장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23권 190~193쪽. 같은 내용이 『박순집 증언록』 2, 31앞~32뒤에 다 나옴)

1868년 해주감영에서 순교한 김택보(金澤甫) 마르코와 ‘십이단’ - 피신지에서 전교 활동

김택보 말구(마르코)에 대한 증언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황해도 서흥(瑞興) 지역의 명문 집안 [巨族] 출신이지만 집이 가난해서 평생 붓장이(筆工)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흥 동북 30리에 있는 어리동(於里洞)에 피해 살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민심이 소란해져 많은 비신자들이 어리동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때 김[형옥](김기호) 요한 회장도 어리동에 피신해 있었는데, 김택보와 함께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형옥(김기호) 회장과 김택보는 비신자들에게 십이단을 가르쳐주고 이어서 교리문답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게 천주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문답을 배우는 소리가 ‘봉우리에 울리고 골짜기를 진동시켜’ 10리까지 에워쌀 정도였습니다. 당시 어리동은 천주교가 공인되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광양’(廣揚)의 세계가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문 원본 - 先授十二端 繼示問答 絃誦之聲 峯鳴谷震 環十里 於里一洞 庶幾若廣揚世界也]

병인양요가 끝나면서 산속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어리동에는 70~80명의 신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택보 가족은 1년 반 정도 어리동에 살다가 포졸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해주 감영으로 끌려간 김택보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5)

김택보는 피신지에서 김형옥(김기호) 회장과 함께 비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했고, 이때도 십이단과 교리문답 학습은 입교의 필수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